



즉시 배포용: 5/14/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슈퍼폭풍 **SANDY** 후 재건된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인상 제한 법안에 서명

재산이 심하게 파손된 주택소유주 및 업주를 위한 구제 지속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슈퍼폭풍 **Sandy** 시에 재산이 심하게 파손된 뉴욕시 주택소유주 또는 업주들에게 세금 경감을 계속 제공할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작년에 주지사가 [서명한](#) 1년 시세 경감을 토대로 하여 납세자가 경감 받을 자격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합니다.

“주택소유주는 슈퍼폭풍 **Sandy** 시에 파손 또는 파괴된 주택을 재건한 후 높은 세금 인상의 부담을 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주택소유주 및 업주들이 재건하여 재산을 전보다 더 탄력성 있게 만들 때에 이 법안은 그들을 계속 보호할 것입니다. 이 구제를 지속할 필요성을 인식한 이 법안 발의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뉴욕주민들은 **Sandy** 후 재건 및 복구 때문에 처벌 받아서는 안 되는데 – 이 법안 덕분에 그들은 처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복구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기 위해 우리가 **Sandy** 복구 프로그램을 손질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 및 주 법률은 재산 소유주들에게 당연한 구제를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뉴욕시장 **Bill de Blasio**가 말했습니다. “이 긴요한 법안에 서명하신 **Cuomo** 지사와 리더십을 발휘하신 상하원의 우리 파트너들께 감사합니다.”

슈퍼폭풍 **Sandy**로 파손된 집을 복원하거나 재건한 일부 주택소유주들은 건물을 폭풍 전에 있던 상태로 복원한 경우에도 주택 평가액이 늘어나서 이제 더 높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처지에 있습니다.

Cuomo 지사가 서명한 새 법률(**A.5620/S.3688**)에 의거 뉴욕시 재산 소유주들은 자신의 재산이 다음 기준에 맞으면 세금 경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무부는 슈퍼폭풍 **Sandy**로 인한 손상의 결과로 2013년에 작성된 과세표준부 상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감정가격을 2012년에 작성된 과세표준부 상의 감정가격으로부터 인하하였습니다.

- 재무부는 슈퍼폭풍 Sandy로 인한 손상의 수리 또는 재건의 결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작성된 과세표준부 상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감정가격을 인상하였거나 할 것입니다.

상원의원 Andrew J. Lanz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허리케인 Sandy에 의해 파손된 집을 수리하는 시 주민들이 더 높은 재산세 고지서로 처벌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본인은 허리케인 Sandy의 피해자들이 재건하여 다시 일어서는데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본인의 법안을 지지해주신 Cuomo 지사와 de Blasio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하원의원 Phil Goldfed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andy가 우리 커뮤니티를 황폐화시킨 후 2년 이상이 지났지만 우리 가족들 중 너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Sandy 세금 감면 법안은 집을 재건하는데 엄청난 재정적 부담에 직면한 가족들을 위해 재산세 상승으로부터 가능한 최강의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Sandy로부터 계속 회복하고 미래를 위해 더욱 탄력적이 되도록 남부 Queens 및 Rockaway의 가족들에게 변함 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Cuomo 지사께 본인은 박수를 보냅니다.”

De Blasio 시장은 지난 달에 해당 시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